제13강 후설: 살아있는 현재

에드문트 후설 (1859~1938)
독일의 철학자. 주요 저작 『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』, 『순수 현상학 및 현상학적 철학을 위한 여러 고안』

▲ 후설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

* 현상학적-선험적 환원
* 에포케(epoche) : "판단 정지"
* 지향성 개념 : "의식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다"
* 지평 개념 : "모든 것은 항상 주변의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의미를 갖는다"
* 절대적 의식류
* 생활세계 (cf. 하버마스)

1. 의식 속으로-후설의 에포케

2. 노에시스-휠레-노에마

3. 휠레의 시간성-원인상(Urimpression), 파지(把持 Retention), 예지(豫持 Protention)

4. 재생(Reproduktion)과 상상(Phantasie) - 정립(Setzung)과 비정립(Nicht-setzung) - 지각을 갖는가 안 갖는가?

www.artnstudy.com

1) 과거의 구성 : 상기(Erinnerung)와 재상기(Wiedererinnerung) - 과거의 지각에 대한 정립.

2) 미래의 구성 : 기대(Erwartung) - 미래의 지각에 대한 정립

5. 후설의 살아있는 현재(lebendige Gegenwart)와 절대적 의식류(absoluter Bewußtseinsfluß)

※ <제13강 후설: 살아있는 현재> 챕터의 강의 노트는 현재 준비 중으로,
8월 중 새로 올릴 예정입니다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^^

www.artnstudy.com